

(주소) 16488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75 (팩스) 031-231-8588

배포일	2025.4.23.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도일	배포즉시				
“경기문화재단, 제62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개최..노동이사제 안착 위한 협치 의지 강조”		1	1	<a href="http://www.ggcf.kr">www.ggcf.kr</a>	부서: 경기문화재단 노동이사 담당: 박현욱 전화: 031-231-8523

## “경기문화재단, 제62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개최..노동이사제 안착 위한 협치 의지 강조”

- ▶ 노동이사제 통한 투명경영과 상생 협치...공공기관 민주성 강화 기대
- ▶ 도내 16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참여..노동이사제 운영 경험 공유와 협력 다져
- ▶ 경기뮤지엄파크 탐방 통해 문화예술기관 운영현장 교류..노동이사 역할 확대 모색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4월 22일 화요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의 제62차 임시총회를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최 하였다. 신임 유정주 대표이사는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문화재단을 이끌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생활문화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문화예술이 도민의 삶 속으로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정주 대표이사는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있는 것처럼, 경노이협도 역시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의 노동이사제가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노이협은 2019년부터 경기도 내 노동이사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노동이사의 역할을 모색하고, 각 기관의 노동이사 운영 제도의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관 방문과 총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제62차 경노이협 총회에는 의장인 경기문화재단 박현욱 노동이사 등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 12명과 경기도 시·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 4명 등 총 16개 기관 16명의 노동이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총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경기뮤지엄파크(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를 방문하여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첨부 사진

